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
배포일자		2023년 4월 26일(수) 총 4매		
담당 부서	철 도 과	담 당 자	• 철도정책팀장 남상용 ☎440-3911 • 담당자 김희원 ☎440-3913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제2공항철도 밑그림 다시 그린다

- 사업 재기획 용역 착수 ... 경제성 향상방안 모색 -
-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-

부산, 광주, 강릉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고속철도로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‘제2공항철도’가 다시 추진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4월 26일 ‘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’을 착수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용역은 제2공항철도의 경제성(B/C)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, 용역비 약 1억9천만 원은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며, 용역기간은 2024년 4월까지다.

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3기 신도시인 광명·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개발계획을 반영하고, GTX-D Y자(인천공항행)와 연계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.

제2공항철도는 수인선(승의)과 공항철도(공항화물청사)를 연결하는 연장 16.7km, 정거장 2개소이며, 추정 사업비는 1조 7,349억 원이다.

제2공항철도가 건설되면 인천발 KTX와 경강선이 연결돼,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까지 3시간대, 광주와 강릉은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된다.

그럼에도 경제성(B/C) 문제로 그동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으나,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계기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.

시는 연말까지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고,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.

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“제2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 이용자의 교통 편의 뿐만아니라 공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성 향상방안을 마련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붙임> 용역개요 및 노선도

붙임1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영역 개요

□ 영역개요

- 용역명 :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영역
- 용역기간 : 2023. 4.26. ~ 2024. 4.25.
- 계약금액 : 193백만원(인천시 50%, 인천국제공항공사 50%)
- 수행업체 : (주)태조엔지니어링
- 주요과업 : 교통수요 예측, 노선 설정, 건설 및 운영계획, 경제성 분석 등

〈사업 개요〉

- 사업구간 : 송의(수인선)~인천역~영종하늘도시~공항화물청사(공항철도)
- 사업규모 : 연장 16.71km, 정거장 2개소
- 사업비 : 1조 7,349억원

□ 추진사항

- 2021. 7. :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(국토부) * 미반영
- 2022. 3. : 제20대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
- 2022. 8.25. : 용역비 분담 협의 완료(인천시↔인천국제공항공사)
- 2023. 4.21. : 용역 계약
- 2023. 4.26. : 용역 착수

□ 추진계획

- 2024.(상) :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(인천시→국토부)
- 2025.(하) :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·고시(국토부)

붙임2 노선도

